전북자치도 종합사격장 '함박웃음'

파리올림픽 스타 김예지·양지인 효과 '톡톡'

올림픽 후 8월 한달간 이용객 3800명
매월 평균 1500명에서 배 이상 늘어나
조성된지 21년, 사격 선수 배출 산실로

임실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이 파리올림픽에서 일약 스타로 떠오른 사격의 김예지·양지인 선수 덕분에 요즘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사진은 전북종합사격장 방문객들이 사격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임실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이 파리올림픽에서 일약 스타로 떠오른 사격의 김예지(임실군청 소속)·양지인 선수 덕분에 요즘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김예지 선수가 올림픽 은메달 획득과 일론 머스크의 언급 등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덩달아 김 선수의 연습 터였던 종합사격장이 지역 명소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25M 권총 금메달리스트인 남원 출신의 양지인 선수 역시, 남원 하늘중 재학시절 이 사격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올림픽 메달의 꿈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자치도 종합사격장에 따르면, 지난 6월과 7월 각 1,300명과 1,500명에 머물던 이용객 수가 8월 한 달간 3,800명으로 배 이상 급증했다.

광고시장의 깜짝 스타로 떠오른 김예지와 금메달 리스트인 양지인의 인기에 힘입어 종합사격장의 올해 입장객도 크게 늘어 지난 한 해 입장객(2만4,000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천 종합사격장 소장은 "김예지와 양지인의 메달 소식 이후부터 갑자기 사격장 이용 문의가 쇄도하면서 전화 받기에 바빴다"면서, "사격 전문 선수출신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해 요즘 일반인들의 방문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메달을 딴 후 과거 그의 사격 영상에 "김예지는 액션 영화에 캐스팅돼야 한다. 연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댓글을 단 일론 머스크의 찬사가 회자되면서 하룻밤에 스타로 떠오른 김예지는 임실군청 사격팀의 핵심 멤버다.

파리올림픽에서 돌아온 김예지가 소속된 임실군청팀은 지난달 20일 열린 봉황기 전국 사격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일궈내기도 했다.

김 선수가 수년간 훈련장으로 이용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사격훈련장은 임실군 청웅면에 위치해 있다.

사격 전문 선수들은 물론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한 국내 몇 안 되는 사격 전문 훈련시설로 2003년에 이곳에 들어서 올해로 설립 21년을 맞았다.

이전 전주 동물원 부근에 있던 종합사격장이 노후화 탓에 임실로 이전 한 것이다.

4만여 평의 부지에 건립된 이 훈련장에는 10M와 25M, 50M 실내 사격장과 함께 야외 클레이 사격장이 갖춰져 있다.

일반인들도 공기총 10M와 야외 클레이 A와 클레이 B 사격장에서 체험이 가능하다.

김예지와 같은 엘리트 선수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국내 중고 대학 전문 사격 선수들의 전지 훈련장소로 애용된다.

숲이 많은 야산을 낀 조용한 곳에 위치해 집중도를 요하는 사격 훈련의 적지로 평가받는다.

훈련장 관계자는 "엘리트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 체험도 가능해 누구나 사격을 즐길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명소"라면서, "김예지 선수의 인기 덕분에 이곳이 전국에 더 많이 알려져 많은 분이 찾아와 사격을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장수군청 女탁구, 내셔널컵 실업탁구대회 단체전 준우승

장수군(군수 최훈식)은 장수군청 여자탁구단이 지난달 31일부터 4일간 경북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4 내셔널 컵 실업탁구대회'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실업탁구연맹, 영주시탁구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실업탁구연맹, 대한탁구협회가 주최했으며 경기종목은 △남·녀 단체전 △남·녀 개인단식 △남·녀 개인복식 △남·녀 혼합복식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단체전 경기에서 장수군청 여자탁구단은 노푸름, 최지인, 유민지, 최유나 선수의 활약으로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결승전에서 양산시청에 아쉽게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문보성 감독은 "선수단의 탄탄한 팀워크와 군민들의 응원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장수군청 여자탁구단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청 여자탁구단은 추석명절 이후 장수 한누리전당에서 장수군 탁구동호인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탁구기술 시범을 비롯한 재능기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U-20 女 축구, 16강 진출 확정

'2024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콜롬비아 여자 월드컵'에 출전중인 한국 축구 여자 U-20 대표팀이 '강호' 독일을 누르고 16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

박윤정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8일(한국시각) 콜롬비아 보고타에 위치한 엘 테초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D조 최종 3차전에서 독일에 1-0 승리를 거뒀다.

앞서 지난 2일 1차전에서 나이지리아에 0-1 패배, 2차전에선 베네수엘라에 0-0 무승부를 거뒀던 한국 대표팀은 이날 독일에 승리하며 최종 1승 1무 1패를 기록하게 됐다.

승점 4점으로 D조 3위에 자리한 한국은 6개로 나눠진 각 조 1, 2위 팀에 이어 조 3위 중 성적이 높은 4개 국가까지 주어지는 16강 진출권을 획득했다. /뉴시스

순창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민체전' 막 내려

종합우승 '전주시' … 대회 주최 순창군은 4위
순창 찾은 선수단·관람객들로 지역경제 '활기'

순창군에서 열린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8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은 개막식이 열린 6일 순창공설운동장에서 기수단이 입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순창군 일원에서 지난 6일부터 3일간의 일정을 치룬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8일 순창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행복담는 순창에서, 함께여는 특별자치도'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뜻깊은 축제의 장이 됐다.

이번 대회는 14개 시·군에서 2만5,000여명의 선수단과 임원, 그리고 수많은 관중들이 참가했다.

총 39개 종목(정식 37개, 시범 2개)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으며, 특히 특히 육상, 수영, 축구, 태권도 등 주요 종목에서는 신기록 수립과 함께 흥미진진한 경기가 이어져 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오후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폐회식에서는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성적 발표 및 종합 시상식, 폐회사 및 대회 총평, 차기 개최지 발표 및 대회기 전달식, 문화예술 공연 등이 진행됐다.

종합 시상식에서는 1위 전주시가 종합 우승을 차지하여 영예의 우승기를 받았다. 2위는 익산시, 3위는 군산시가 차지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순창군은 4위를 기록했다.

최영일 군수는 "대회를 위해 함께해 주신 임원진과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대회 기간 동안 순창을 찾아주신 선수와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순창군의 체육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회 기간 동안 순창군을 찾은 선수단과 관람객들로 인해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회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약 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